

은빛 하모니가 만드는 선물, 꿈과 희망을 선물하다

+ 탄현1동 실버동요합창단



노래를 흥얼흥얼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목요일 아침마다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진다. 연습에 몰입하는 이 시간이면 ‘실버동요합창단’ 어르신들은 음악과 하나가 된다. 조금은 서툴지라도 진심을 담아 노래하기에 더 아름다운 실버들의 합창. 그래서인지 듣는 이의 마음은 금세 촉촉해진다.

동요를 부르며 동심으로 돌아가다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노랫말이 귓가에 울려 퍼진다. 동요 ‘등대지기’의 가사가 서정적인 선율을 타고 가슴에 꽂힌다. 학창 시절 음악실에서 울려 퍼지던 소녀 소년들의 합창이 떠오를 만큼 맑은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겨보니 탄현1동 실버동요합창단(이하 합창단) 단원들이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다.

올해 8월에 창단한 합창단에는 20여 명의 어르신이 활동하고 있다. 어르신들이지만, ‘동요합창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요’만을 부른다. ‘과수원길’, ‘텃밭에서’, ‘노을’, ‘초록빛 바다’ 등 다양한 동요 레퍼토리를 소화해낸다. 어르신들만의 감성에 세월의 깊이까지 더해진 합창단의 동요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조경순 탄현1동 주민자치회장은 어르신들이 동요를 부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행복해진다고 미소를 짓는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동요를 떠올렸어요. 동요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노랫말을 음미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옛 추억을 소환하기도 합니다.”